

-[언론보도] 멕시코 전투기 세대교체 절실 -

일자 : '21년 6월 29일	무역관명 : 멕시코시티	작성 : 김민정	
		TEL : +52-55-5514-3173	EMAIL : minkim@kotra.or.kr

□ 주요내용

- 멕시코 국방 전문포털 Infodefensa.com은 멕시코 공군이 근 40년 전부터 보유한 전투기 F-5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이 고액인 점과 멕시코 공군의 영공활동 범위가 32%밖에 되지 않는 점을 들며 최신 전투기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도함
- 멕시코국방부는 1981년 미국 국방성을 통해 F-5 12대(F-5E 10대, F-5F 2대)를 획득하였으며, 82년부터 401 비행 중대에서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나, 전투기 2대는 2건의 사고로 완파되었고 현재,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남은 10대 중 F-5F 2대, F-5E 1대만 운용되고 있음
 - * 1983년 치와와주의 Santa Gertrudis 공군기지에서 폭격 연습 중 추락
 - * 1995년 독립기념 공중 퍼레이드에서 타 군용기와 충돌 후 추락
- 멕시코의 치안·안보 분야 전문가 Iñigo Guevara는 멕시코가 적어도 군용기 12~18대를 보유한 비행 중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, 지난 정권부터 다수의 전문가와 공군 내부 인사들도 멕시코 전투기의 세대교체가 긴급하다고 경고

□ 시사점

- 멕시코 현 정권은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까지도 경매에 부칠 정도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이므로 정권이 교체

되는 2024년까지 전투기의 세대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

- 그러나 멕시코는, 마지막 전투기 획득이 40여 년이나 지났고 이전 정권부터 지속해서 전투기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, 장기적으로 F-5를 대체할 수 있는 FA-50이나, KF-21의 잠재적인 구매국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출처

멕시코 방산뉴스 전문 포털-infodefensa.com

<https://www.infodefensa.com/latam/2021/05/31/noticia-especial-interceptores-mexicanos-niegan-morir-desventajas-antiguedad.html>

멕시코 방산뉴스 전문 포털-defensa.com

<https://www.defensa.com/revista-n22355/1>

<https://www.defensa.com/mexico/f-5-fuerza-aerea-mexicana-cumplen-37-anos-servicio>